"법안전쟁 완승" VS "총체적 무기력"

〈민주당〉 〈한나라〉

■대치정국 해소…여야 득실은

민, 정체성 확보·결속력 강화

한, 주도권 상실·갈등 불거져

6일 쟁점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국면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대치 국면에서 민주당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당내 결속이 크게 강화된 반면, 공룡 여당인 한나라당은 총체적 무기력을 여실히 나타냄에 따라 당내 후폭풍에 시달릴 전망이다.

◇표정관리 민주당=6일 오전 열린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농성 해제식에서 소속 의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밝은 표정을 나타냈다. 이번 법안 전쟁에서 소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공룡 여당인 한나라당에 완승했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실제로 이번 법안전쟁에서 민주당이 얻은 전리품은 상당하다.

우선 10년 여당의 관성에서 벗어나 강력한 실력행사를 통해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내부 결속도 크게 강화됐다. 본회의장 사수를 위해 함께 밤을 지새고 등산용 로프로 '인간 사슬'을 형성하면서 주류와 비주류, 구 민주계와 구 열린우리계 등으로 대표되던 내부 불신의 골이 상당 부분 메워졌다는 것이다.

당내에 팽배했던 패배주의의 그늘이 사라졌으며 그동안 흔들렸던 지도부의 리더십도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보수 여당과 강력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동안 이탈했던 지지층이 돌아오면서 지지율도 20% 중반대로 급상승했다.

민주당은 추후 정국에서도 이번 법안전쟁 승리의 기세를 몰아간다는 방침이다. 당장 쟁점 법안 처리 등에서도 거대 여권을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며 지지층을 결집, 4월 재보선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정권 교체의 기반을 쌓아간다는 입장이다.

◇'외우내환' 한나라당=한나라당은 한마디로 초상집 분위기다. 이번 대치 국면에서 민주당의 기습적인 본회의장 점거 카드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며 거대 여당으로서의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며 국회의 주도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공공연하게 '총체적 무기력'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도부 퇴진론'까지 제기되면서 내부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의 법안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점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힌 것을 기점으로 그동안 수면 밑에 숨어있던 고질적인 계파 갈등마저 재현되는 분위기다.

친박(親朴·친 박근혜) 진영에서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섰지만 친이(親李·친 이명박) 진영은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 방침을 내세우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청와대가 당내 주화파의 손을 들어준다면 내부 갈등은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전파의 입장에 서면서 속도전을 고집할 경우, 여야 관계 경색은 물론 내부 갈등도 증폭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눈물

가자지구 피해는 민간인 몫

어린이 포함 200여명 사망

식수·전기 등 부족 고통 가중

6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집을 잃은 한 팔레스타인 소년이 가자지구 내 유엔 학교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군과 무장정파 하마스간의 지상전 와중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온갖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개전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으로 인한 생활필수품 부족을 겪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식수나 전기 공급은 물론 공습 때문에 부상해도 치료조차 못 받는 상황에 처했다.

유엔과 가자지구 의료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전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550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2천500명에 달하며, 사망자 중 적어도 200명이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다른 가자지구 의료 당국자는 사망자 수가 555명, 부상자가 2천700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어린이 59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자지구의 모든 병원들은 진통제 같이 기본적인 약품은 물론 시신을 담을 가방마저 모자란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대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병원들은 자체 발전설비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부상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도 인명피해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의료진 3명과 자원봉사자 3명이 숨졌고 구급차 4대가 파괴되면서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일조차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격 목표는 하마스 요원이나 하마스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한 가자지구 주민의 말을 인용해 그동안 하마스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이 주민이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취임 2주 앞둔 오바마 현안 산적

경기부양책 등 의회와 이견

'가자 사태' 침묵도 비난 유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앞날이 순탄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취임을 2주일 앞두고 워싱턴의 헤이 애덤스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고 있는 오바마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목도하고 있을 것이다.

오바마가 오는 20일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1조달러의 경기부양책이 즉각 그의 서명을 기다리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정치적 협상은 2월 중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등이 포함된 외교 현안 리스트에서 우선순위가 올라가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오바마가 열흘간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 비난의 유탄을 맞고 있다.

오바마의 취임식에는 100만이 넘는 미국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기적으로 미국은 엄청난 국가적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물론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것은 오바마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 다만 의회의 논의에 부쳐지게 되면 바로 정치적 다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오바마가 극력 피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오바마는 5일 의회에서 경기부양책이 낡은 정치에 빠져 들어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미국인들은 지금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80%의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되겠지만 20%인 60만명의 일자리는 정부 부문에서 창출하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이 공화당측의 해석이다. 오바마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대한 침묵에 대해 외교 정책에 관한 한 지금은 한 명의 대통령이 있을 뿐이라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변명했다.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연합뉴스